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생들, 우수논문상

전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생들이 2024년도 전력 전자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8일 전주대에 따르면 대학원(원장 홍용) 및 산학협력단(단장 김상진)은 지난 1~4일 4일간 제주에서 열린 전력 전자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 '전북지역 에너지플러그인 인제인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주대 전기 전자공학과 대학원 김태관·박경수(석사 취득 예정), 전찬우·국자표(학석사 연계) 등 4명의 학생이 전공 산·학·연 전력전자 전문가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기전자공학과 전용석·김은수 교수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배터리 충전전압 대응할 수 있는 3-Bridge 공진컨버터라는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육군학생군사학교 방문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하계인형훈련 중인 육군사관후보생(ROTC)을 격려하고자 육군학생군사학교(총장 괴산군 소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일정에는 박진배 총장(ROTC 157)을 비롯한 ROTC 교수동문회 박근철 교수, 박기범 교수와 전주대 ROTC 총동문회 양지현 총동문회장, 서안중 사무총장, 이태연 조직국장 등이 함께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 학교장 김동호 소장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학군교 교무처장과 전주대 학군단장이 참석하며 환담과 현황 소개가 이뤄졌다. 특히 후보생 격려와 지원의 의미를 담아 위문금도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생명사랑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자살 고위험 환경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생명사랑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독적인 음독자살을 방지하고자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신청 읍·면·동 중 최근 5년 이내 음독자살 시도나 사망 사고가 있었고, 노령 인구가 많은 신내면 11개 마을 17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영면 '홍부네 빨래터' 문 열려

남원시 이영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이불 세탁 빨래방인 '홍부네 빨래터'가 문을 열었다.

홍부네 빨래터는 홀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6월 이영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실업부를 정비해서 빨래방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빨래방 운영을 위해 이영면 이장협의회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대씩 기부하였으며, 지리산농협협동조합과 세탁 세계 및 섬유유연제 후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쾌적한 보급자리 조성에 힘을 보탰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 선유도 · 익산 미륵사지로 힐링 어때요'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역사 배우기'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일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역사배우기'의 일환으로 군산과 익산시 투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6월 2일 고창과 부안군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운영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 답사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전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사 문화기행 프로그램이다. 도 관광산업과의 '전북투어버스'와 함께 운영되며, 올해 10월까지 시·군 구석구석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군산 고근산군도의 선유도를 찾아 아름다운 해변과 산책로, 스카이다이 등 체험을 즐겼다.

또한, 익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와 익산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전문 해설을 지원하였다.



지난 고창·부안 여행에서는 고창읍성과 선운사, 부안출포산생태공원, 부안갯벌생태관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성을 지키는 수문장 복장과 장군 의상 등을 입어보면서 어린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흥겨워하였다. 선운사에서 사찰음식을 먹어본 내팔 외국인 근로자 비빈은 "낯선 음식 때문에 섯 손이 가지는 않았지만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서 특별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기전대 축구부, 백두대간기 16강 진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총장 조희천)는 강원 태백에서 열린 제19회 백두대간기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 참가, 16강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8일 기전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제대와의 경기에서 3대 1 승리를 시작으로 4일 예원예술대를 1대 0, 순북음총회신학교와 0:0으로 비기면서 전주기전대에서는 유일하게 16강 진출을 먼저 확정지었다.

특히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앞서 치러진 대학축구 U리그 전반기 6경기 전승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김보람 교수(운동재활과)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전문대학 유일하게 선정된 두드림 프로그램 사업으로 한층 더 두터워진 학생선수들의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제42회 전국웅변·스피치·시낭송 강사시연대회 성료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전북본부가 주관하는 '제42회 전국웅변·스피치·시낭송 강사시연대회'가 지난 6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웅변·스피치·시낭송 강사시연대회는 평화통일과 복지농촌, 전통문화 계승으로 잡는 사회, 행복한 나라건설에 이바지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이바지해 국민의 자신감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했으며, (주)웹스필드가 협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21명의 연사들이 참가했다. 대회의 전체대상은 이성민(서울시)씨가 차지했다. 전체최우수상은 이희관(대전시)씨, 전체특상은 최현식(김제시)씨와 황금석(정읍시)씨에게로 돌아갔다.

남궁진(익산시)씨와 정차봉(군산시)씨가 웅변부 대상, 이명란(충남 서천군)·이선영(익산시)·송순자(익산시)씨가 웅변부 특상을 수상받았다. 스피치부에서는 대상에 차홍재(대전시)씨, 특상에 한태순(정읍시)씨가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시낭송부 대상은 김운남(전남 여수시)씨와 성민재(전주시)씨가, 시낭송부 특상은 김대선(군산시)씨가 차지했다. 강사부에서는 김수린(부안군)씨가 대상, 정현재(전주시)씨가 특상을 수상받았다.

김예진(대전 한밭초등학교)군은 각각 학생부 대상과 특상을 수상받았다.

끝으로, 유치부 대상에 김규민(관촌새싹어린이집)과 박초아(관촌새싹어린이집)양이 유치부 특상에 김고은(관촌새싹어린이집)양이 선정됐다.

합계 진행된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는 이희기 대회 추진위원장이 전북자치도지사 표창, 정차봉(군산대원우회장)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강정원 대회 운영위원장이 전주시회의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동영 국회의원, 양정무 (주)웹스필드 회장 김양욱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본부 회장 김기수 대회 준비위원장, 이희기 대회 추진위원장, 강정원 대회 운영위원장 등 임원들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지난 5일 도시재생 뉴딜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예심리상담사 2급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취업에 희망하는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9월부터 매주 2회씩 총 14회차에 걸쳐 원예치료기법 등 이론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20명의 교육생은 한국원예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시험에 합격해 원예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 병원, 복지관 등에서 원예심리상담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 수지면 주거 환경 개선

남원시 수지면에서는 지난 7일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회장 이상운)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27가정에 마루에 샷시를 설치하고 토방 미장작업, 방충망 교체 등을 지원해 주었다.

대상자들은 1일 소봉행정사무를 추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23년 10월 19일 업무협약을 한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과 종합건축의 업무 협조를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무주군 무봉면의 무봉고를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의 특색을 살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지역발전 및 태권도교육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적극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을 위해 지난 6일 무주태권도원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해외 학생 유치 및 지원, 교육 커리큘럼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을 위해 협력을 약속해 주신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무주군에 감사드리며, 무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태권도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전을 밝혔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인의 꿈인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해외의 우수한 학생들이 무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2024 올댓트래블' 박람회 관광 공동 홍보부스 운영

순창군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올댓트래블에 참가해 적극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다.

2024 올댓트래블은 이태일디, 코엑스, 한국관광스타트업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홍보 중심의 기존 박람회는 달리 국내외 테마여행, 관광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등이 최신 여행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여행박람회다.

박람회는 올해 110여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순창군은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이 함께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순창군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순창의 주요 관광지가 새겨진 홍보물 및 장류 캐리비로 만든 기념품과 제19회 순창장류축제 리플릿을 제공해 순창의 대표 축제인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순창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제19회 순창장류축제와 순창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순창투어 구독 이벤트를 통해



홍보 부스를 찾은 관람객에게 순창 고추장과 순창군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순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올댓트래블 박람회는 순창군이 최신 여행·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울장학속 대학생 익산시 일원서 지역봉사활동

전북특별자치도서용장학속(관장 김관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익산시 합리면 용포면, 용안면 일원에서 입사 대학생과 직원 50명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서울장학속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전북지역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봉사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다.

이번 서울장학속 지역 봉사활동은 '머리는 세계로 마음은 고향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장학속 대학생 자치 기구인 제33대 서울장학속 자유회(회장 탁은영, 서울대 교육학과)가 중심이 되어 기획한 농촌일손돕기, 마을환경미화, 지역 아동 및 청소년과의 학습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지역봉사활동은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과 교육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직접 함라초등학교를 방문해 자신들이 만든 학습 프로그램 '꿈과 나'를 찾아가는 멘토링' 등을 시행하면서 예비 교사로서 현장 학습에 나서는 등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합일여고 졸업생을 비롯한 서울장학속 대학생들이 합일여고를 방문해 대

학진학상담 등 '선배와의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